

민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합류 고민

미래한국당 쏠림에 원내 1당 지위 상실 위기감 '소수정당 지원' 명분도... 군소야당은 "쏠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합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정당 자체 창당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결국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보내온 뒤 이를 토대로 비례대표 후보 파견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4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면담에 들어갔다. 오는 12~13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인데, 연합정당 합류시 이 후보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당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에 이미 제안서를 보낸 '정치개혁연합' 외에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 비슷한 성격의 시민사회계 창당이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 진영 내부의 전반적인 통합과 연대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연합정당 합류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내 기류도 점차 참여 쪽으로

전환하는 흐름이다. 이상호 비례공천위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소수정당의 독자적 진입이 어려우니 (민주·진보진영이) 연합해 정치권에 진입시키자는 취지와, 통합당의 쏠림을 연대로 막아내자는 '민주대연합' 정신이 있어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심사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그쪽 정당으로 넘겨달라는 것인지, 우리 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자체적으로 내고 선택되지 못한 분들을 거기로 보내자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한다"며 비례공천위 해체와 비례 무공천을 통한 민주·진보진영 비례대표 '몰아주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분위기가 이처럼 급속히 냉각되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 직접 창당에 비해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외부 정당과의 연대는 '소수정당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어 부담이 덜하기도 하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역시 '쏠림'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당장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제안을 받았으나 동의할 수 없다"며 "쏠림에 쏠림을 맞서는 대응 방식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진보세력 연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장난일 뿐 쏠림은 그냥 쏠림"이라고 비난했다.

총선 라운지

윤영덕 "동남갑 정치혁신 1번지 만들겠다"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지역을 '광주 정치혁신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동남갑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선거 캠프 전체 회의를 갖고 경선 필승의 각오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정신'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선에 임하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들

동남갑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경환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히 설치해야"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잘 알고 감사를 드린다"며 "북구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 거점지역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당 최경환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들

거점지역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철현 "여수 상포지구와 연관 있다면 정계 은퇴"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



부합하지 않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상포지구 문제가 경선 배제 이유라 면담 공천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포지구와 관련해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일 "컷오프(공천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예비후보는 "경쟁력이 확실한 후보에게 경선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우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당의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황주홍 "김산업 진흥법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고흥보성상항강진 예비후보



표 수산물인 김의 수출을 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산업은 여촌고령화로 생산인력 부족, 기후 변화에 따른 양식어장 환경 변화로 지속 발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도 국내 소비 수요가 정체된 실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당 황주홍 고흥보성상항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3일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해양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어업인들의 숙원인 '김산업 진흥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위원들을 적극 설득했다"고 전했다.

황 예비후보는 "해양 법률안은 지난 해 10월 31일 제1회 발의한 것으로 '식품업계의 반도제'라 불리는 우리나라 대

표 수산물인 김의 수출을 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형호 기자 khh@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정치권에 협치·국민엔 성금 모금 제안

국회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초당적 협력을 야당에 요청하고 국민에 성금 모금을 제안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세지고 있는 야당의 대외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코로나19 전곡 확산의 기폭제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한 정부 조치를 주문하면서 신천지 문

제에 대해 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대책위-최고위 연석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하고 초당적 총력 대응에 합의했다"면서 "초당적 총력대응의 가장 핵심은 정치공세가 아닌 건전한 대안 제시와 당장 급한 코로나19 극복 추경의 신속한 처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천지에 대한 고강도 조치도 요청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는 신천지에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

천지 소속 무중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 치료 센터로 제공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신천지에 대한 야당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총리는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다"면서 "그런 태도가 방역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원 및 국민에게 실시일반 성금 모금도 제안했다. 이 전 총리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환자와 의료진께 우리의 사랑을 담은 소액의 성금을 함께 보내드리고자 제안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성금과 자원봉사 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 전략공천 20곳으로

박성준 성동을·김현정 평택을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팀장과 김현정 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각각 서울 중구성동을과 경기 평택을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전략공천 확정지는 20곳으로 늘었다.

도종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최고위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전했다. 도 위원장은 "박 전 팀장은 균형감 있고 공정한 시각에서 정치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언론과 소통의 전문가"라며 "신뢰받는 정치의 복원, 국회 혁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고용안정 개선으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 노동문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성동을은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의 지역구이고, 경기 평택을은 같은 당 유 의동의 지역구다.

이와 함께 최고위는 전략지역이던 충남 천안병을을 경선지로 전환했다. 이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내부 경쟁을 통해 공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박양수 전 서울시 정무수석과 이정문 변호사가 2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누구를 전략공천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쓰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0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0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사공업체)을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문의 및 접수: (주)에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 환경표지/ KS인증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신도료번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신 안 222-8171 ·용 북 433-1503	·문 흥 266-1960 ·양 산 571-7658 ·우 산 433-1503	·북광주 525-3761 ·오 지 266-7601
동구	·남 광 675-5530 ·중 앙 222-9054	·동 명 222-9054 ·충 장 222-8171	·동 부 225-6001
남구	·남 부 675-5530 ·송 하 675-6605	·백 운 651-1833 ·진 월 671-7276	·봉 선 675-5530
서구	·광 천 382-5788 ·운 천 376-7153 ·화 정 369-1625	·상 무 372-2352 ·치 평 376-6511 ·서 평 369-1625	·서광주 369-1625 ·풍 임 603-0311
광산구	·운 남 952-1687 ·하 남 9556 451	·월 곡 959-1920 ·광 산 944-0444	·침 단 973-2900